

謀事在人, 成事在天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원자력공학박사 방사선관리기술사

20억달러와 2조원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 미국은 불꽃 튀는 전쟁터의 살육전에서 기선을 잡으려고 야심에 찬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뉴욕시의 한 섬인 맨해튼에 미국 육군성 산하의 한 공병 사단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핵폭탄을 만들 비밀 사업 계획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미국 공병대가 주도하였고, 그 사업의 이름을 「맨해튼 공병 지구(Manhattan Engineer District)」로 위장했다. 전 후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가 바로 그 사업의 공식 명칭이었다.

인류가 핵반응 현상을 발견하고, 처음 원자핵의 연쇄 반응 시험에 성공한 지 19년의 긴 세월도 아닌, 겨우 19개월 만에 「리틀 보이」란 애칭의 첫 핵폭탄을 탄생시켰다. 그 프로젝트에 쓰인 돈은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

당시의 돈 가치로는 엄청난 차이가 날 테지만, 우연히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원전센터(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를 유치한 지자체의 지역 발전을 위해 약 2조원 규모를 투자할 돈과는 수치로 비슷한 액수였다.

많은 과학자들은 애국심으로 그 프로젝트에 자진 참여했다. 그곳의 모든 과학자들은 자기 맡은 분야에서 각자 애국하는 심정으로 혼연 일체가 돼 기적 같은 일을 성취시켰다.

우리의 원전센터 부지 선정 사업에 거의 18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한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룬다. 아직도 우리 일은 부끄럽게도 긴 세월 동안 국력만 허공으로 날려 보내고 말았다. 원전센터 부지의 선정에만 투자할 돈이 왜 핵폭탄을 만드는 예산만큼 들게 되고, 걸린 기간도 12배나 더 길게 끌고 가야 하는지, 그런 애타는 문제를 책임질 기성 세대가 풀 수 없던 딱한 사정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납득시킬 구실은 마련해 놓았는가?

이젠, 어느 정당이든, 혹은 반핵 단체나 환경 단체이든 엄청난 국력 소모적인 결사 반대 운동만은 접을 때가 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다짐하자.

헛소리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 출신 핵물리학자 실라르드란 선견지명의 과학자는 자기가 작명한 '연쇄 반응'의 물리적 현상에 미쳐 있었고, 핵폭탄 제조를 나치당의 히틀러보다는 앞서 개발해야 한다고 나 홀로 과학자 클럽들을 돌면서 주창하였다. 하지만 그를 제외한 많은 과학자들은 핵폭탄 제조를 불가능하다고 믿고 그의 주장을 나무랐다. 그런 예를 당시 핵물리 학계를 주도하던 과학자들의 말들로 상기해 보자.

영국이 낳은 위대한 핵물리학자였고, 원자핵을 인류 최초로 발견했던 러더퍼드경도 핵폭탄을 만든다는 얘기를 '헛소리'라 외면했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한

표준 원자 모델의 주장자였던 덴마크 출신의 세기적 핵 물리학자 닐스 보어도 “전 국토를 공장으로 변환시키지 않고서는 우라늄-235를 농축시킬 수 없다”고 장담했으며, 그리고 상대성 원리로 유명해진 아인슈타인도 그 일의 성공은 감감한 한밤중에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쏘아 맞히는 확률로 표현했다. 마치 한 공상 소설과도 같은 꿈의 세계를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 세계로 바꿔놓았다.

그 성공의 배후엔 천성으로 타고난 예지를 지녔던 두 사람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애국심의 발로(發露)가 있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 개별 과학자가 창안해 낸 아이디어들을 절묘하게 서로 연결짓고, 이들을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잇게 한 천재적인 관리자이면서 연구소 원장이던 오펜하이머 박사,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지휘를 맡은 그로브스(Leslie Richard Groves) 준장의 빈틈없고 신속한 결단력이 그 일을 성공시켰다.

대령이던 공병 장교 그로브스는 준장으로 승진하면서 앞으로 핵폭탄 제조의 총책임을 맡기로 국방 장관으로부터 엄밀히 내락을 받는다. 그는 임명장 받기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1942년 10월 5일 곧바로 버클리 대학의 고속중성자 연구소로 단숨에 달려갔다. 그곳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심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팀장 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일성은 “육군성은 이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정이 잘못됐더라도 빠른 결과(성패)가 나온다면 이의는 없다. 만일 두 가지 가능한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 불가능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둘 모두 선택하라”였다. 그의 공식은 「리틀 보이」 순산 때까지 모든 핵-공장의 공정들에 적용됐다.

그로브스는 그 때 처음 버클리대학 총장의 오찬 초대석에서 오펜하이머 박사를 만나게 된다. 군사정책위원회에 그를 프로젝트의 연구 총괄 관리 책임자로 추천했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정보 요원들이 그의 사생활

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도록 지시했던 기연도 서로에겐 있었다.

원전센터 유치를 청원한 용기와 결단

우리는 지난 1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전센터 장소 문제로 고민해 왔다. 안면도에서 시작된 일이 굴업도를 거쳐 동해안의 몇 개 군들(경북 영일군, 영덕군 그리고 울진군 등)을 기웃거렸고, 최근에는 부안군 위도를 최종 원전센터 부지로 지정하였으나 부안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그 일은 멈춰 섰다.

잘 알려진 대로 그 동안 원전센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부안 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웠던 몇몇 사태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다.

부안 사태로 말미암아 그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추진되고 있다. 각 중앙 일간지들은 지난 5월 31일 끝난 제1 단계의 추진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청원을 미처 하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도 청원할 기회를 주고 있던 해도, 부안군 위도가 본-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새로 청원된 10군데가 정부의 사업 추진 팀에 희망을 안겨준다.

제1 단계 청원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해온 것과는 달리 10개 후보 지역들(경북 울진군, 기성면, 근남면 그리고 북면 등 3 곳, 전북 고창군 해리면, 군산시 소룡동 그리고 옥도면 등 3곳, 전남 영광군 홍농읍, 완도군 생일면 그리고 장흥군 용산면 등 3곳. 끝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1곳 등)이 청원 신청을 했다고 전한다.

그들 중에서 몇 곳들은 작년 초 1차 공모 때, 정부가 미리 예비 후보지로 지정했던 4 개 지역들 중의 일부도 포함됐다. 작년 공모 때 정부는 그들에게 신청 우선권을 주었지만 그들은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오직 부안군 단독으로 신청하여 부안 사태를 몰고 왔었다.

그 사태 이후, 원전센터 건립지의 공모에 관한 정책의 미비점들도 대부분 다시 손질됐다. 금년, 새로운 도

구로 장착된 재-공모의 항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 아직도 순항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또 다른 격랑의 위기가 닥쳐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 배는 금년 안에 정부 계획대로 목적지에 정박할 것이다. 필자의 성급한 예단은 분명한 정황(情況)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필자의 예단을 뒷받침할 정황들

- 이젠 불안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없기를 갈망하는 국민적 합의가 배수진을 치고 있고,
- 지난 18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고비마다 험난했던 파도에 대처한 노하우가 축적됐으며,
- 그 시설물들에 관한 안전성 문제들도 많은 원전 지역 거주민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성숙돼가고,
- 정부가 유치 지역에 줄 모든 지원 약속들이 어느 때보다도 신뢰를 주며,
- 다행히 청와대 비서실의 문 수석이 직접 일을 챙길 것이란 보도가 있었고,
-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모사재인(謀事在人)의 정신으로 무장된 점 등이다.

필자의 좁은 시야에 위의 정황들이 감지되고 있다. 만의 하나 그런 조건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진다면, 재-공모의 배는 파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절대로 정부가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반핵 단체와 연대한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은 제1 단계 마감 날, '제2의 불안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부안을 두 번 죽일 것이다'는,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먼, 마치 그런 사태의 재현을 바라고 부추기는 듯한, 아주 무책임한 말들을 광화문 네거리 한 모퉁이에서 당당하게 예언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 결정한 합의에 우선할 순 없다.

투명한 절차로 주민들의 의사가 몇 단계 과정들을 거치면서 걸러지는 것이므로 청원된 지역들과 아무런 연

고 없는 해당 지역 밖의 사람들이 지역 일에 참견할 사안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터무니없는 원전센터의 공포 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 자신들이 선택한 고통이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돈도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원전센터 부지 문제는 모사재인, 성사재천의 우주 공식으로 풀어가자

정부의 정책 사업이든 그리고 사기업이나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든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의 시작(謀事)과 그 터를 잡는 일들은 대체로 사람이 먼저 다룬다. 그런 일들은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오고, 치밀하게 설계되며,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추진하는 차례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 일의 성공(成事)은 하늘의 힘이 작용한다. 너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일에 열정으로 몸과 정성을 쏟아 붓는 일, 그 후 두려운 마음이짐으로 성사(成事)를 기원하는 데까지 한계다. 누가 겁없이 하늘의 몫에 도전할 수 있을까?

부안 사태란 복병은 중국인들의 전통적 생활 철학인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이란 우주의 한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금년에 다시 손질된 원전센터 재공고 로드-맵의 핵심은 첫째로 주민의 의사 결정 방식을 개선시킨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일정을 정해둔 3단계 절차들을 거치면서 주민 다수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 짜여져 있다.

알려진 대로 제1 단계는 지난 5월 31일 마감했던 주민 청원 절차이고, 앞으로 추진될 제2단계는 청원된 지역들의 지자체 장이 청원된 읍, 면에 속하지 않는 관내 다른 곳들의 주민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예비-신청을 하게 되며, 그리고 제3 단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전체 유권자들 1/3 이상이 투표에 참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본-신청을 하게 된다.

